

# 이사회, 12일까지 '개원준비위' 구성

## 동국대 불교병원 내년 7~8월 개원

### 동국학원·학교·조계종 이견조율

동국대 일산 불교병원이 9월 27일 준공식을 가졌지만 개원시기가 늦어지면서 교계의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동국학원 이사회가 절묘한 해법을 내놨다.

동국학원은 1일 등대 교무회의실에서 제 187차 이사회를 열고, 불교병원 개원에 대한 각계의 공감대 형성과 무리 없는 일 추진을 위해 12일까지까지 위원장 1인, 법인 3명, 학교

3명, 동창회 1명, 감사 1명 등 총 9명으로 '병원개원 준비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의했다.

개원준비위원회는 병원 경영 컨설팅업체를 초빙하여 개원에 따른 공간배치를 조정하고, 현안이 된 정관개정 및 불교병원장 선임, 재정인사명칭 확보와 개원 이후 대처방안 마련 등 현재의 미해결 과제와 향후 병원의 미래까지 수립하게 된다. 위원

회 산하에는 실무, 운영, 기획팀이 가동된다.

개원준비위가 가동됨에 따라 그동안 동국학원, 조계종과 학교, 동창회가 서로간의 불신으로 병원개원을 놓고 개원시기와 정관개정, 병원장 선임 등 의견집결을 이루지 못한 만큼 이런 상황을 극복하는 타결책이 될 전망이다.

이렇게 될 경우 불교병원은 내년 7-8월 정상개원이 가능해지고, 10월 내 이사회가 열려 정관개정을 통한 직원선발, 의료기기 구입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합격자 발표만 남겨 놓고 있는 1차 직원선발(200여명)의 경우 최근 법인사무처가 이사장 명의로 학교에 '전형자들의 민원이 관계부처에 끊이지 않은 만큼 정관개정과 관계없이 미리 합격자를 발표해도 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교원 41명에 대한 승진인사를 단행하고, 하권익 병원장 인사에 대해 '안된다'고 결정권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원우 기자 wfkim@buddhania.com

### 연꽃마을 감로당 준공 효문화원 기공식 함께

연꽃마을이 최근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을 위한 시설 확충에 본격 나섰다.

연꽃마을은 8일 경기도 안성 장릉리에 전국 최대 규모의 무료 노인전문요양시설인 감로당 준공식을 가졌다. 감로당은 대지 1천5백평, 건평 7백2십평의 이중 건물로 평생 입주 노인 70명, 단기보호노인 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 1층에는 단기보호소, 식당, 이·미용실, 목욕탕, 상담실, 치과 진료실, 명상실 등을 들어서며 2층 노인들의 주거 생활관으로 꾸며졌다.

또한 이날 연꽃마을은 연건평 1천5백평 지상 지하 7층 규모의 '효문화원' 기공식도 함께 가졌다. '효문화원'은 국내 유일의 효 테마 전문 교육장으로 세워진다. 강유신 기자

### 재가연대 印불교지원 본격화

#### 1차 3곳 학교·법당 건립에 3만5천불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 이하 재가연대)의 인도불교 및 수계운동 지원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재가연대는 제1차 인도불교 지원 사업으로 석가족이 밀집해 있는 우타르프라데시(Uttar Pradesh) 주 3곳(학교, 법당, 불교공원에 시설 건립) 목적으로 3만 5천 달러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3차에 나눠 20일에 열릴 수계식 때 1차로 1만 달러가 전달된다.

19일과 20일 양일간에 걸쳐 상카시아(Sankhya) 지역에서 10만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석가족 Youth Buddhist Society(이하 YBS)의 요청으로 25,000여명의 식사(한화 130만원 상당)를 지원한다. 기금은 성곡관대 윤희환 교수의 후원으로 이뤄진다.

또한 20일 법요식에서 계를 받는 사람들에게 부처님 사진, 단추, 수계증, 법요집 등을 제공한다. 예상금액 1,200여만 원은 보덕학회 류홍우 거사의 500만원과 한국불교법사연합회 기탁금 700여만 원으로 마련됐다.

재가연대는 인도지원 사업을 한국 사찰과 연계하는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9월 말경 1차로 서울 경기 지역에 후원 서류를 발송했다.

남동우 기자

### 초대사장 오현스님 추대 춘천불교방송 운영위



춘천불교방송 초대사장에 오현스님(60·신홍사 회주)이 추대됐다.

춘천불교방송은 2일 춘천베어스타운 호텔에서 종단과 지역을 대표하는 운영위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면직 운영위원장에 마근(신홍사, 부위원장)에 청

화(정평사), 백운(석왕사, 원도(삼운사), 원행(구룡사) 스님 등 4명을, 감사에 밀본(정법사, 금곡계조암) 스님, 교문에 현해스님(월정사 주지)을 각각 선출했다.

춘천불교방송은 1일 시험방송을 시작했으며 11월 1일 개국한다.

강지연 기자



◇무공사 스님과 신도들이 9월 29일 울산-해운대간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있다.

## 대응전뒤에 6차선 고속도

### 무공사, 소음·진동·식수고갈 등 심각한 환경피해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무공사주지 대한 대응전 바로 10m 뒤로 울산-해운대간 6차선 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소음, 진동, 식수 고갈 등 심각한 환경 파괴가 야기되고 있다.

봉도사 말사인 무공사 대응전 바로 뒤로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식수

고갈, 소음, 진동 등으로 스님들의 기도도와 수행은 물론 신도들의 수행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지게 될 공산이 크다.

7백 여평의 대지에 대응전 용왕당, 요사채 등을 갖춘 무공사는 지금도 공사 소음으로 찾는 신도들이 현격

히 줄어든 실정이다. 이에 따라 무공사 신도회는 무공사 수호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찬욱)를 구성하고 9월 29일 무공사 경내에서 집회를 열고 한국도로공사의 무분별한 도로 공사를 강력히 규탄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 “이젠 마음을 닦고 싶다”

#### 출가 선언한 서울경찰청 김기영차장



서울경찰청 김기영(치안감) 차장이 2일 '불교에 귀의하겠다'며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한 후 사무실을 정리하고 집을 떠나 관가(官衙)를 물러 불교계에 화제

니게 소울했던 불교에 귀의해 보낼 작정'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명예퇴직 제출 직전에는 상관을 만나 자신의 명퇴 계획을 상의하며 "체속에서 많은 분들로부터 분에 넘친 사랑을 받았다. 이제는 본래 제가 갈 길을 가야 할 것 같다"는 말도 했다. 부인에게도 최근 "경찰직을 그만 두고 불교를 공부해야겠다"는 의사를 비쳐 왔다. 주변 인사들에게도 '바람이 나무를 기만하 내려버려 두지 않는다'며 부추린 생활을 마감하고 마음 닦기를 위해 왔고 스님

#### “바쁜 생활 그만, 본래 가야할 길 가는것”

를 모으고 있다.

김차장의 '출가선언'은 그가 경찰로서 적지 않은 공적을 세웠을 뿐 아니라 승진을 시점이었다는 점에서 다소 충격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경찰계에서는 '더 일해야 할 사람'이란 점에서 아쉬움을 표하고 있는 것. 김차장의 명퇴와 출가선언이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그의 행적과 불교에 대한 평소의 소신은 잔잔한 감동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는 인사담당관에게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하며 "이제 떠나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남은 인생은 그동안 경찰생활로 바빠 본의 아

이었던 선친의 뒤를 따라 은퇴 후 불교에 귀의하겠다는 말도 자주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차장의 출가는 선친의 영향과 한 때 승려 생활을 했던 개인적인 이력 등으로 볼 때 예정되었던 결행으로 풀이된다.

2일 서울을 떠나 경북 지역을 여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차장은 부산 동래교와 동국대 불교학과를 나와 1975년 간부후보생 제23기로 경찰에 입문, 강동경찰서장, 서울경찰청기동단장, 경비부장 등을 거쳐 울초 치안감으로 승진해 서울경찰청 차장으로 봉직해 왔다.

임연태 기자

### 목탁소리 씩씩한 실천승가회 10돌

#### 남동우 (취재1부 기자)

2일은 실천불교전국승가회(의장 최화, 이하 승가회)가 창립된 지 꼭 10년이 되는 날이었다. 이날 파주 보광사에서 열린 10주년 기념법회는 승가회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드러낸 자리였다. 오후 3시로 예정된 법회는 4시가 되어서야 열렸고, 참석자도 200명 이하로 줄어든 실정이었다. "이렇게 하려면 아예 승가회를 해산하자"라고 얘기했을 정도였다.

정토구현전국승가회와 대승승가회가 힘을 합쳐, 독자 권력의 반이성적인 탄압이 극에 달하면 때에 맞서 싸우던 재야운동이 실천승가회라는 결과물로 나타났다.

승가회는 불교계의 사회참여와 94년 종단개혁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고, 종헌·종법 민주화나 행동하는 승가정립에도 기여

했다. 또한 양심수 문제나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북녘동포돕기 운동 등 불교 외부로도 시각을 넓혀, 고통 받는 중생들과 함께 '실천'하는 '승가'상을 보였다.

그러나 요즘 승가회의 모습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마디로 예전보다 활동성이 약화됐고, 불교계 내부 문제에도 힘있게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화 스님은 "예전의 싸움꾼 이미지를 벗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단계로 탈바꿈하기 위한 과도기"라고 표현했다.

지금 승가회 출범 당시와는 사회 상황이나 불교계 상황이 많이 변했다. 하지만 승가회가 지향하고 있는 '중생 구제·정토사회 구현'은 여전히 시대적 요청이다. 새로운 모습으로 '실천'하는 '승가회'가 되길 바라는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 보우제 일환 영화제 개최

#### 봉은사, 14일까지 7편 상영

"불교영화 보러 오세요"  
강남 봉은사(주지 원혜)는 조선시대 불교의 중흥조인 허응당 보우 스

님의 뜻을 계승하기 위한 보우제 행사의 일환으로 영화제를 마련했다.

6일부터 14일까지 보우당에서 매일 1편씩 1-2회 상영되는 불교영화는 달마야 놀자(8일 오후 4시30분), 문둔(9일 오후 4시30분), 만다라(10일 오후 4시30분),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11일 오후 4시30분, 12일 오후 4시30분), 리불타(14일 오후 2시, 6시) 등 7편.

이와 함께 보우스님 행장 영상물, 봉은사 홍보 영상물, 근세의 큰스님들의 행장 및 법문 등도 상영된다.

김원우 기자

**현대불교신문이 새롭게 탄생합니다**

**HR (주) 화림한방 화장품**

**화장품**

- 미백제리 •에센스 •영양크림

**비누**

- 피지제거 •미백 •여드름제거

**식품**

- 다이어트 •선식 •천연향

**세계 각국 특허 출원 준비중**

블자로서 화장품·비누 식품사업에 참여하실분(소자본 / 재택근무가능)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 254-16  
Tel. 053)313-2711 Fax. 053)313-2716

**HR (주) 화림한방 바이오**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 **행자(예비스님) 모집 - 조계종**  
행자 교육 전문도량

- 행자원(시내 또는 산중) 있음
- 1인 1실 및 대중방
- 엘리트 스님 양성 목표(40세 이하, 고졸이상)
- 수행, 공부의 모든 지원, 민주적 교육 분위기
- 문의 : 011)9852-0075(총무스님)

▶ **납골당**

- 최신의 시설로 영구보존(납골당의 신개념)
- 설, 추석 제사천도 및 기일 축원 해드림
- 언제나 염불, 기도소리가 들리는 법당 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음

문의 대구 053)474-8228  
www.TVbuddha.co.kr

대한불교 조계종

**운흥사**

주지 지우  
대중 일동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5동 151번지  
Tel.053)768-3882 / 767-9627

대한불교 조계종

**월인사**

회주 혜국  
주지 혜관  
신도회장 김상주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옥분리 605-6

대한불교 선화종 총본산

**황방사**

조실 의천 합장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만성리 산84  
Tel.063)214-0788, 214-0108

대한불교 선화종

**대원사**

조실 의천 합장

전북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산152  
Tel.063)288-2752, 232-8078